



하나금융그룹은 10월 20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향산도예에서 전통도자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글 윤정아 기자 사진 전민규 기자

VIP 고객 초청 전통도자문화체험

향산(恒山) 임항택 명장 ‘전통이 담긴 도자기’

가을 향기가 날로 완연해지는 10월, 하나금융그룹은 가을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경기도 이천의 향산도예에서 진행된 전통도자문화체험은 우리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참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VIP 고객 30여 명과 하나금융그룹 김병호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 참석해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향산(恒山) 임항택 명장은 이천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로, 조선시대 전사 기법을 거의 독학에 가까운 방식으로 연구하고 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 구리 성분이 든 안료로 그린 무늬에 투명유를 발라, 환원염에 구워내면 오묘한 붉은 빛을 발산하는 전자 백자가 만들어진다.

고객들은 힘찬 기운의 소나무에서부터 하늘거리는 붓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된 향산도예의 도자기들을 감상했다. 이후 임 명장으로부터 1시간 동안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한 강의를 들

었다. 도자기의 특징과 감상법을 배우는 동안 고객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10여 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전통 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내는 요철 장면을 함께 감상했다는 점이다. 보통 24~36시간 정도 불에서 구운 도자기는 가마 안에서 4~5일 정도 식힌 후 꺼내게 된다. 작은 접시 하나도 서로 빛깔이 다르고, 저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백자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고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하나금융그룹 김병호 부회장은 “보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더욱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객의 기쁨 하나를 위해 매진하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고객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